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박남수*

- I. 머리말
- II.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사상 신라 來降과 신라의 탐라국 經略
- III. 탐라국의 신라와의 정치 외교적 관계
- IV. 탐라국의 물산과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
- V. 맺음말

국문요약

탐라의 대외교섭을 문무왕 2년의 탐라국 내항 기사와 문무왕 19년의 신라의 탐라국 경략기사, 그리고 애장왕 2년(801)의 탐라국 조공 기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탐라의 특산물인 신라 대외 교역사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문무왕 2년(622) 탐라국의 신라로의 내항은, 백제 의자왕의 항복에 따라 백제의 속국으로서 당나라와 신라에 대한 항복의 의사를 표한 것이었다. 또한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하였던 것은, 탐라국이 백제부흥군과 웅진도독부-왜로 이어지는 동맹의 라인을 유지하던 가운데, 676년 기벌포 해전으로 나당전쟁이 종결되고 678년 4월 신라가 무진주 도독을 임명하여 전라도 일원까지 지배력을 확대하자, 동 시기에 8개월 여 동안 일본에 함께 체재한 신라 사신과 탐

*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대표 논저: 『신라수공업사』(신서원, 1996),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주류성, 2011), 『신라 화백제도와 화랑도』(주류성, 2013), 『한국 고대, 목면과 향료의 바닷길』(경인문화사, 2016), 「신라 범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2017) 외.

라국주 간의 협의가 있었던 데서 가능하였다.

신라는 탐라국에 대하여 안승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성을 인정하여 종묘와 사직, 독자적인 내정과 외교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탐라는 일본에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 693년 11월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라의 특산물 가운데 珍珠와 玳瑁, 牛毛, 그리고 白芷·八角·零陵香 등의 향료, 사향, 石決明 등은, 탐라가 백제·신라와 내왕하면서 고급 물품의 재료나 향료, 약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통일신라의 융성한 대외 교역품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제어 : 탐라국, 문무왕, 애장왕, 탐라국 來降, 탐라국 經略, 탐라국의 물산, 신라의 교역물품

I. 머리말

耽羅는 사서에 따라 州胡·聃牟羅·毛羅·托羅·耽牟羅·涉羅·儋羅 등 여러 이름이 있다. 洲胡와 涉羅의 경우 달리 보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이들 또한 학계에서는 대체로 탐라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고대 탐라와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백제의 속국이었다가 신라의 삼국통일로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고려 숙종 10년(1105) 고려의 군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2월 국정교과서 파동과 관련하여 “탐라국은 제주의 옛 왕국으로 고려 중기 이후 한반도에 복속”²⁾되었다던가, “탐라국의 경우 고려 초기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기존 검인정 교과서는 모두 ‘탐라’를 별도로 표기했는데...”³⁾라고 하여, 고대 탐라의 한반도 제국과의 관계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662)조에는 武德 연간(618~626) 이래로 백제에 臣屬하였다가, 이때에 항복하여 신라의 屬國이 되었다고 하였다.

-
- 1) 이에 대한 연구서는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92~106쪽 참조.
 - 2) ‘제주도는 일본땅?’ 국정교과서 파문, KBS 뉴스, 2016.12.02.
 - 3) ‘탐라는 일본땅?’... 국정교과서 ‘탐라국 누락’ 수정될 듯, 헤드라인제주, 2016.12.05.

이와 관련하여 고대의 탐라는 백제의 부용국이었다가, 신라의 속국이 되었는데 견해⁴⁾가 있는 한편으로, 탐라와 백제·신라의 관계를 조공관계로 특징짓는 것으로 보는 견해,⁵⁾ 그리고 백제의 속국이었다가 백제 멸망 이후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다가 다시 신라에 복속되고, 고려에 이르러 군현제에 포함됨으로써 한반도의 영역이 되었다는 견해⁶⁾ 등이 있었다.

이처럼 고대 탐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州胡國으로부터 고구려 문자명왕 13년(504)조의 涉羅, 백제 문주왕과 동성왕조의 耽羅, 신라 문주왕과 애장왕조의 탐라 기사로부터, 탐라가 매우 이른 시기로부터 한반도의 마한을 비롯하여, 고구려·백제·신라와 교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탐라와 신라의 관계를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살피고,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사에 탐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매우 한정되고 이미 알려진 자료로써 이러한 과제를 살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고대 탐라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II.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사상 신라 來降과 신라의 탐라국 經略

탐라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세 건의 단편적인 내용뿐이다. 곧 문무왕 2년의 탐라국 내항 기사와 문무왕 19년의 신라의 탐라국 경략기사, 그리고 애장왕 2년(801)의 탐라국 조공 기사이다.

-
- 4) 李清圭, 「耽羅 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省谷論叢』, 1996, 4~27쪽.
 5)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濟州島史研究會, 1994.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역사와 세계』 30, 2006.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6) 森公章, 「耽羅方補考」, 『續日本紀研究』 239, 1985; 森公章,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森公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朝鮮學報』, 1986, 118쪽; 森公章, 위의 책.
 篤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耽羅文化』 1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0.

- A. 문무왕 2년(662) 봄 2월 탐라국의 임금인 좌평 도동음률이 와서 항복하였다. 탐라는 武德(618~626) 이래로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좌평으로써 官號를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 (耽[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津]來降。耽[耽]羅自武德以來，臣屬百濟，故以佐平爲官號，至是降爲屬國)『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 B. 문무왕 19년(679) 봄 2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하였다.(發使略耽羅國)『삼국사기』 권 7, 신라본기 7)
- C. 애장왕 2년(801) 겨울 10월 탐라국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耽羅國遣使朝貢)『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위의 기사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들 세 기사 모두 탐라를 ‘耽[耽]羅國’이라 일컬었다는 점이다. 이는 백제가 문주왕 2년(476) 방물을 바치고 은술의 관위를 받은 주체를 ‘탐라국’이라 일컫다가, 동성왕 20년(498)의 탐라 친정시의 객체를 ‘耽羅’라 일컫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아마도 문자왕 13년(504) 북위에 사신 芮悉弗을 보내어 조공하면서 ‘섭라는 백제에 병합되어(涉羅爲百濟所并) 섭라의 물산인 珮를 바치지 못한’ 사실을 일컬었던 것은, 동성왕 20년(498) 백제의 탐라 친정과 관련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繼體天皇 2년(508) 12월조에는 “남해중의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하였다(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國)”고 일컬었다. 또한 신라는 耽[耽]羅國主가 佐平을 칭한 때를 武德(618~626) 연간으로 보고, 이때를 탐라가 백제에 臣屬한 때라고 여겼다.

이와 같이 탐라와 백제의 통교 시기에 대한 기록간의 차이는 결국 해당 사서가 취득한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 보듯이 州胡는 3세기 중후반에 이미 韓中을 내왕하며 교역을 통하여 재화를 사들였다.(乘船往來，市買韓中) ‘市買韓中’을 「汲古閣本」에는 ‘市買中韓’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韓中’은 三韓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거나, 마한 연맹을 주도했던 新彌國과 주변 소국으로 보는 견해, 마한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⁷⁾

당시에 탐라에는 고인돌 축조 집단 외에 적석 묘역에 석곽묘와 옹관묘를 축조하는 집단이 있었고, 이 시기 유적이 제주도 해안 지역 전역에 걸쳐 분

7) 장창은, 앞의 논문, 93쪽

포하고 단위 유적의 규모도 너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⁸⁾ 아울러 제주 산지 향 축조 공사 때 출토된 五銖錢(4점), 貨泉(11점), 大泉五十(2점), 貨布(1점) 등 18점의 중국 화폐가 출토되었다. 또한 제주시 용담동 무덤유적에서 단검(1기)과 화살촉 도끼 투겁창 등 다량의 철제 유물과 함께 출토된 철제 장검(86cm, 2기)은, 손잡이 부분의 양쪽에 소용돌이[고사리] 모양의 장식이 부착된 것으로 세종시 용호리 유적과 포항 옥성리 유적, 김해 양동리 유적과 상통하며, 삼양동 유적 출토 玉環은 재질과 형태로 보아 낙랑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주호국 시대에 탐라는 낙랑·대방과 마한·변진한·왜와 능동적으로 교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이러한 데는 당시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에는 낙랑·대방 군현의 상인이 변한의 철을 매매하기 위해 내왕하였고, 여기에 마한과 진변한 상인들과 함께 州胡 곧 탐라의 상인들도 이들 지역을 내왕하면서 개별적으로 상업을 영위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탐라는 문주왕 2년(476) 백제에 방물을 바치면서도, 한편으로 고구려와 통교하여 珮 등을 공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동성왕 20년(498) 백제 동성왕의 親征에 당하여 다시 백제의 영향하에 들어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 문자명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일컬었듯이 무령왕 4년(504) 무렵 국세를 회복한 백제가 최소한 서해 중부 이남의 제해권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탐라와 고구려와의 내왕이 막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일본서기』에는 탐라가 무령왕 8년(508) 백제와 처음으로 통교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이는, 백제가 그 이전에 일본에 탐라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다가 이 무렵에 일본에 그러한 정보가 알려진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탐라 내부의 모종의 정치적 변동 예컨대 지배 세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백제와 통교한 세력의 주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후 隋 開皇(581~600) 初에 陳을 평정한 수의 戰船이 표류하여 耽牟羅國을 거쳐 백제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사건이 있었다.¹⁰⁾ 이때까지 耽牟羅國을 칭한 것으로 보아, 탐라는 백제에 貢賦를 바치는 정도의 관계였다고 여겨진다. 다만 『삼국사기』 문무왕 2년(662)조에서 당나라 武德(618~626) 이래로

8) 이청규, 앞의 논문, 53쪽.

9)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耽羅의 대외교역 漢式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153~156쪽. 장창은, 앞의 논문, 94~97쪽.

10) 『隋書』 東夷列傳, 百濟; 『北史』 列傳, 百濟.

탐라국주가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좌평으로써 官號를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항복하여 [신라의] 屬國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백제 무왕 때에 이르러 탐라가 백제의 제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속한 대가로 좌평의 관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盤口瓶, 細頸瓶을 특징으로 하는 회색도기가 백제 후기 陶器 양식과 통하는 것은¹¹⁾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라가 문무왕 2년(662)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좌평으로써 官號를 삼았다’고 인식한 것은, 당시 신라에 내항한 耽[耽]羅國主 佐平 徒冬音律[津]에 의한 정보라고 여겨진다. 백제가 탐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臣屬의 대가로 佐平의 관직을 내렸던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백제는 근초고왕대 이래로 왜왕에 대하여 侯王의 작호를 내린 바 있거니와, 개로왕대에 왕족에게 左賢王·右賢王을 내렸고, 웅진 천도 이후로는 異姓의 귀족에게도 面中王·阿錯王·弗斯侯·弗中侯 등과 같은 작호를 내렸다.¹²⁾ 그들의 백제 관등은 佐平이었거니와, 耽羅國主 佐平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왕으로서의 백제국왕이 있는 한편으로 그 휘하의 여러 왕 가운데 하나로서 耽羅國主에게 좌평이란 관등을 내리고 탐라를 관장하는 왕으로서 위치한 것이,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좌평으로써 官號를 삼았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한다.

문무왕 2년(662) 탐라국의 국주가 직접 신라에 내항한 것에 대하여 『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이를 문무왕 원년(661)의 사실로 보았다.¹³⁾ 그러나 『고려사』 지리지 탐라국 내항기사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전제하고 있어 『삼국사기』의 기년 문무왕 2년(662)에 내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탐라국의 내항을, 당시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장차 한반도의 지배국이 되려는 신라국의 실정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¹⁴⁾ 『삼국사기』 편자가 탐라의 신라에의 복속을 빠른 단계에 이루어진 것에 맞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⁵⁾

11) 이청규, 앞의 논문, 54쪽.

12) 노중국,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중앙통치조직」, 『신편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2002, 173~174쪽.

13) 『고려사』 권 57, 지 11, 地理 2,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14) 진영일, 앞의 논문, 2007, 224쪽.

그런데 문무왕 2년(662)은, 齊明天皇 7년(661) 5월 23일 탐라가 일본에 王子 阿波伎를 보내고,¹⁶⁾ 용삭 원년(661) 8월 탐라국왕 儒李都羅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한¹⁷⁾ 직후였다. 여기에서 『삼국사기』의 탐라국주 ‘徒冬 音律[津]’과 중국 사서에 보이는 ‘儒李都羅’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모종의 차이가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차이에 도 불구하고 양자는 동일한 존재 곧 당시 탐라 국주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¹⁸⁾

아무튼 탐라 국주는, 신라 무열왕 7년(660) 7월 13일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고, 7월 18일 웅진성에 도피하였던 의자왕이 항복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백제에 신속하였던 탐라국은 당시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왜국의 건당사 伊吉博得의 귀국선의 탐라 표류를 계기로 661년 5월 23일 백제의 연합군인 왜 정권에 사신을 파견하는 한편으로, 8월에는 당나라와 왜에 사신을 보내었다. 탐라가 5월에 王子 阿波伎 등을 왜에 보낸 것은 왜 사신의 표류라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면, 8월에 당나라와 왜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탐라가 그 이듬해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항복하였다는 것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의 한 축이었던 당나라의 의사를 묻고, 나당 연합군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신라에 항복의 의사를 표시한 외교적 조치였다고 본다.¹⁹⁾ 곧 백제 의자왕의 항복에 따라 백제의 속국으로서 당나라와 신라

15) 寬敏生, 앞의 논문, 270쪽, 각주 12.

16) 『日本書紀』 권 26, 齊明天皇 7년 여름 5월 23일.

17) 『唐會要』 권 100, 耽羅國; 『冊府元龜』 권 970, 外臣部 15, 朝貢.

18) 『당회요』에는 탐라국주의 성을 儒李, 이름을 都羅라고 하였는데, 『일본서기』 권29, 天武天皇 2년(674) 윤6월조와 天武天皇 6년(678) 가을 8월조에 耽羅王子 ‘都羅’가 등장하고 있어, ‘都羅’를 과연 이름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탐라국주 ‘徒冬音律[津]’과 ‘儒李都羅’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정한 음운학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추측하건대 ‘都羅’는 『삼국사기』의 ‘徒冬’에, ‘儒李’는 ‘音律’에 상응하지 않을까 한다. ‘都羅’의 당시 음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오늘날 중국음으로 ‘dōu luó’이고, ‘徒冬’은 ‘tú dōng’이지만, ‘徒冬’의 ‘冬’은 “涇陰縣, 本高句麗冬音奈縣, 景德王改名. 在穴口島內. 今河陰縣”(『삼국사기』 권 35, 雜誌 4, 地理 2, 新羅, 海口郡)의 사례에서 ‘涇’ ‘河’ 등으로 음사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都羅’와 ‘徒冬’의 음이 서로 비슷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사서에 보이는 ‘儒李’의 중국음은 ‘rú lí’로서 ‘音律’의 중국음 ‘yīn lǜ’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에 대한 항복의 의사를 표한 것이, 당나라의 조공과 신라에 대한 내항이었다고 본다.

탐라국주의 내항에 대하여 문무왕은, 탐라가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여겼다. 당시에 신라와 탐라 간에는 모종의 외교적 협약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문무왕 19년(679)의 탐라국 경략(B)이나, 애장왕 2년(801) 탐라국의 조공 기사(C)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는 문무왕 19년(679) 2월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하였다. 이를 신라의 탐라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화로 보거나,²⁰⁾ 신라의 군사적인 경략으로 탐라가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¹⁾ 또 한편으로 군사가 아닌 사신을 보내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신라 사신이 탐라에 와서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²⁾

사실 신라가 문무왕 19년(679) 2월 문무왕이 ‘탐라국’에 ‘發使’하였다는 것은, 국가간에 사신을 보내었다는 의미임에 분명하다.²³⁾ 다만 문무왕은 사신을 보내어 ‘略’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이는 ‘略’은 대체

19) 算敏生은, 문무왕 2년 탐라국주 내항 기사는 『삼국사기』 편자가 신라에의 복속을 빠른 단계에 이루어진 것에 맞춘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조에 ‘탐라는 본래 신라에 조공하고 있었는데 후에 백제에 복속하여 문무왕 원년에 재차 신라에 내항하였다’고 기술하였다 하고, 『고려사』 지리지의 ‘신라를 정통시킨 관념에 규정된 설’은 채용할 것까지 없다고 평가하였다.(算敏生, 앞의 논문, 270쪽 각주 12) 그러나 算敏生이 지적한 『고려사』 지리지의 내용에는 백제의 복속과 문무왕 원년의 탐라국주의 내항 기사만이 있어 算敏生이 지적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바, 算敏生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해당 사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0) 算敏生, 앞의 논문, 270쪽.

21) 森公章, 앞의 논문, 1986; 森公章, 앞의 책, 263쪽.

22) 진영일, 앞의 논문, 225쪽.

23) 『삼국사기』에 보이는 ‘發使’의 용례는 대체로 州郡 등의 지방에 사신을 보내어 賑恤하거나 慰撫 또는 安撫, 隄防의 修葺, 勸農, 巡問, 죄수의 錄赦 등을 행할 때에 살필 수 있다. 그 밖에 諸郡邑의 疆境을 分定(『삼국사기』 권10, 新羅本紀 10, 哀莊王 9년(808) 봄 2월)하거나, 세금의 독촉(『삼국사기』 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3년(889)) 등에도 ‘發使’한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나라 간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대체로 ‘遣使’를 사용하였으나, 문무왕이 당의 설인귀에게 보낸 답서에 ‘發使奏聞’과 함께 ‘更發遣使’라고 하여(『삼국사기』 권 7, 新羅本紀 7, 文武王 11년 가을 7월 26일) ‘發使’나 ‘發遣使’, ‘遣使’ 간에 별다른 차이점을 살피기 어렵다.

로 智略, 謀略, 雄略 외에도 威懷之略, 略地, 經略, 殺略 등의 용례가 있다. 이 가운데 威懷之略²⁴⁾은 군사적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다스리는 것을, 경략은 대체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격파하거나 사신을 보내어 순종케 한 것을 지칭한다. 이에 신라 사신이 탐라에 와서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²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무왕의 탐라국 경략과 유사한 사례가 나당전쟁이 한창인 동왕 15년(675) 2월에 있었다. 곧 당의 劉仁軌가 신라군을 七重城에서 격파하고 군대를 돌이키자, 당 고종이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로 삼아 經略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이에 문무왕이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 사죄하고 문무왕의 관작을 복구하였다.²⁶⁾ 당 고종이 취한 일련의 조치 곧 군대가 아닌 李謹行을 安東鎮撫大使 곧 사신으로 삼아 신라를 ‘경략’하게 함으로써 신라의 사죄를 얻어낸 것은, 문무왕이 사신을 발하여 탐라국을 ‘경략[略]’하였다는 것에 상응한다. 따라서 문무왕의 탐라국 경략은, 문무왕 2년 탐라국주의 항복으로 인한 속국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663년 8월 17일 백제부흥군이 왜군과 함께 백강 전투에서 당군에 패하여, 僞王子 扶餘忠勝·忠志 등과 士女 및 倭衆, 耽羅國使가 일시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²⁷⁾ 따라서 탐라국은 662년 신라에 내항하였으나, 백강 전투 당시에 왜와 함께 백제부흥군의 군영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무왕 2년(662) 탐라국주가 신라에 항복하였다는 것은 나당연합군에 대한 백제의 사비성 함락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고, 백제 부흥군의 활약으로 다시 백제-왜로 이어지는 동맹의 라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는 백강 전투 이후 665년 8월 13일 就利山 盟約을 마치고 그 사신이 신라, 백제, 왜와 함께 劉仁軌를 따라 당 고종의 태산 封禪儀式에 참여하였다.²⁸⁾ 또한 태산의 封禪을 행한 665년 8월에 왜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666

24) “...昔方貢之愆 責在連率 … 務盡威懷之略 揃披害羣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삼국사기』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13년 여름 4월)

25) 사신을 보내어 ‘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략·공략하다’라기 보다는 ‘謀計하다’는 의미로 풀이하여 ‘신라 사신이 탐라에 와서 탐라왕을 설득하여 조공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진영일, 앞의 논문, 225쪽.)

26) “劉仁軌破我兵於七重城. 仁軌引兵還, 詔以李謹行為安東鎮撫大使, 以經略之. 王乃遣使, 入貢且謝罪. 帝赦之, 復王官爵”(『삼국사기』 권 7, 新羅本紀 7, 文武王 15년 봄 2월)

27) 『舊唐書』 권 84, 列傳 34, 劉仁軌.

년 1월 11일과 667년 7월 11일에는 다시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貢獻하였다. 이는 백제 멸망 이후에도 웅진도독부와 왜, 탐라로 이어지는 연계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668년 9월 21일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한 이후 문무왕 19년(679) 2월 문무왕의 탐라 경략 때까지, 탐라는 사신을 신라에 전혀 파견하지 않았지만, 왜에는 669년 1회, 674년 1회, 676년 2회, 678년 1회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다.²⁹⁾ 사실 이 시기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때였다. 669년 탐라 사신의 왜 파견은 668년 9월 고구려 평양성 함락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674년 윤 6월에 탐라가 파견한 久麻藝 등은 天武天皇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고 여겨지는데, 일본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들 탐라사신 일행을 筑紫에서 返却하였다. 다만 이때에 탐라의 국왕과 사신 등이 일본의 大乙上의 관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676년에는 8월과 9월에 각각 耽羅調使 王子 久麻伎와 耽羅王 姑姑가 筑紫와 難波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결국 그 이듬해 7월 8일에 귀국하였다. 이들 왕자와 국왕이 57여 일 차로 연이어 일본에 건너간 것은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675년 9월 신라의 천성 전투의 승리, 그리고 買肖城 전투에서 李謹行의 20만 군사를 격퇴한 데 따른 탐라국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사실 이들의 귀국이 늦어진 것도 나당전쟁의 추이를 관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된다. 곧 기벌포 해전으로 나당전쟁이 종결된 이후 676년

28)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5년(665) 가을 8월; 『資治通鑑』 권 201, 唐紀 17, 高宗宗; 『册府元龜』 권 981, 外臣部 26, (唐) 高宗 麟德 2년(665) 8월조의 내용도 『삼국사기』와 동일하게 4국의 국사를 데리고 태산 봉선의식에 참가한 것으로 전한다. 다만 『舊唐書』 권 84, 列傳 34, 劉仁軌傳에는, 유인제가 新羅 및 百濟·耽羅·倭 4국의 酋長을 거느리고 태산 봉선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전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29) 669년 3월 1일 王子 久麻伎 등의 貢獻(『日本書紀』 권 27, 天智天皇 8년 春 3월 己丑), 674년 윤6월8일 王子 久麻藝·都羅·宇麻 등의 조공(같은 책, 권 29, 天武天皇 2년 閏 6월 壬辰), 676년 8월 1일 王子 久麻伎가 調使로서 筑紫에 이른 것(같은 책, 권 29, 天武天皇 4년 秋 8월 壬申), 676년 9월 27일 耽羅王 姑姑가 難波에 도착한 것(같은 책, 권 29, 天武天皇 4년 秋 9월 戊辰), 678년 8월 28일 王子 都羅의 朝貢(같은 책, 권 29 天武天皇 6년 秋 8월 戊午) 등을 들 수 있다.

11월에서야 이들 탐라객이 귀국하였던 것에서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 탐라객이 귀국한 이듬해인 678년 8월 28일, 탐라는 다시 王子 都羅를 일본에 보내어 조공하였으나, 그는 이듬해 1월 22일에야 일본의 수도에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이들 탐라사신들의 向京이 늦어진 것은, 일본 조정 내에서 그들의 使命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 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의 使命이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으나, 都羅의 일본 파견은 678년 4월에 신라가 阿滄 天訓을 武珍州都督으로 임명한 데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처럼 탐라가 일본에 계속 사신을 파견한 것은, 당시의 정세 곧 신라가 671년 7월 26일 나당전쟁 중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아찬 眞王을 도독으로 임명하고, 676년 11월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를 격퇴하여 사실상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그리고 678년 4월 무진주 도독을 임명하여 파견함으로써 전라도 일원까지 지배력을 확대한 것과 관련될 것이다.

사실 676년 8, 9월 耽羅王子 久麻伎와 耽羅王 姑如가 일본에 가서 체재 중일 때에, 일본의 사신이 676년 10월 10일 신라에 파견되어 677년 2월 11일에 귀국하였다. 일본 사신의 신라 체재 중에 기벌포 해전이 있었고, 그 결과는 일본 조정에 보고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신라에서 676년 11월 3일 金淸平이 일본에 파견되어 677년 8월 27일에 귀국하였다.

탐라의 왕과 왕자가 676년 8, 9월부터 677년 7월 8일까지 일본에 체류하였으므로, 귀국한 일본 사신으로부터 기벌포 해전의 결과를 익히 들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의 사신과 같은 해 11월 3일부터 다음 해 7월 8일까지 무려 8개월여 동안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던 만큼, 양국 사신 간에 상당한 정보의 내왕이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金淸平의 사명 가운데 ‘請政’이 있었던 만큼, 기벌포 해전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신라-일본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신라는 탐라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였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미 일본 조정과 탐라, 신라와 일본 조정, 그리고 신라와 탐라 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을 것인 만큼, 신라 조정으로서 679년 2월 탐라국에 군대가 아닌 사신만을 보내어 신라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略’이라 표현하지 않았을까 한다. 신라는 현실적으로도 671년 7월 전격적으로 소부리주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웅진 일원은 당과 웅진도독부의 점유 내지 신라와 상호 전쟁 중이었다. 이때에 신라

의 실제적인 지배력이 탐라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할 수 있었던 것은, 문무왕 16년(676) 11월 소부리주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가 당나라에 승리함으로써 나당전쟁을 일단락 짓고, 문무왕 18년(678) 4월 阿滄 天訓을 武珍州 都督에 임명함으로써 전라도 일원을 장악함과 아울러 탐라국에 이를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신라사신과 탐라국 간의 논의, 일본조정과 탐라, 일본과 신라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무력이 아닌 사신의 파견만으로 탐라에 대한 신라의 정책을 쉽게 성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Ⅲ. 탐라국의 신라와의 정치 외교적 관계

각종 사서에는 탐라가 백제에 이어 신라에 부용하였다고 기술하였다.³⁰⁾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신라가 융성할 때에 탐라국의 15대손 高厚와 高淸의 형제 3인이 耽津에 건너가 조공하였다 하고, 『삼국사기』의 백제 문주왕과 동성왕조 기사 및 신라 문무왕 2년조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다만 양서 모두 탐라국주가 신라에 내항한 시점을 문무왕 원년(661)이라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³¹⁾

사실 문무왕 2년(662) 탐라국주의 신라 내항과 문무왕 19년(679) 신라의 탐라국 경략에도 불구하고, 탐라국은 여전히 일본과 통교할 뿐더러 백제의 관등을 유지하였다. 또한 신라에는 애장왕 2년(801)에서야 조공한 기사(C)가 보일 뿐이다. 이 조공 기사는 신라가 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유일한 기사이다.

앞서 살폈듯이 탐라는 문무왕 2년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나

30) 『資治通鑑』 권 201, 唐紀 17, 高宗 麟德 2년(665) 8월 壬子. “耽羅國, 一曰僞羅, 居新羅武州南島上, 初附百濟, 後附新羅.”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流鬼. “龍朔初 有僞羅者 … 初附百濟 麟德(664~665)中 酋長來朝從帝至太山 後附新羅”

31) 『고려사』 권 57, 志 11, 地理 2, 전라도, 진도현 탐라현; 『世宗實錄』 地理志 권 151, 全羅道 濟州牧.

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데 따른 백제 부용국으로의 항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탐라국은 백제부흥운동과 당나라의 웅진도독부 설치, 백강전투에서의 나당 연합군의 승리, 취리산맹약과 나당전쟁을 거치는 와중에서, 기왕에 백제 부용국으로서 백제부흥군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부흥운동이 백강전투의 패배로 실패함으로써 탐라의 사신은 당의 유인궤를 따라 태산 봉선의식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나라에 의한 웅진도독부이지만 백제의 명맥을 잇는다는 점에서 신라보다는 웅진도독부측에 경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백제부흥군을 지원하였던 천지천황의 일본 조정과도 긴밀하게 통교하였다고 본다. 일본 또한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하였던 천지천황의 재위기에는 백제의 명맥을 잇고 있었던 웅진도독부의 백제와도 빈번하게 사신을 내왕하였다.³²⁾ 탐라와 일본과의 통교도 탐라의 백제와의 친연성 곧 과거에 백제의 부용국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통교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본의 조정은, 천지천황이 672년 1월 10일 사망하고 임신의 난을 겪었다. 이후 동북아시아 각국의 일본과의 외교는, 신라를 비롯하여 안승의 고구려와의 내왕으로 점철되었고, 기왕의 당이나 웅진도독부의 백제와의 내왕은 단절되었다.³³⁾ 이러한 일본 내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674년 탐라의 사

32)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百濟および高句麗の使について』, 『日本歴史』 241, 1968, 30~31쪽. 鈴木靖民은, 天智 7년(668) 4월 庚午 이전의 사신은 웅진도독부로부터 파견되었고, 이때부터 天智 10년(671) 6월 庚辰의 최후 백제 사신까지는 백제 유민에 의해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鈴木靖民이 지적한 대로 天智 7년(668) 4월 庚午 이전의 백제 사신은 百濟鎭將으로 표현되고 있어 당의 유인궤 등이 웅진도독부에서 파견한 것은 옳지만, 그 이후 파견된 백제 사신은 백제 유민이라기 보다는 당의 백제에 대한 정책 곧 百濟復國論에 따라 당이 건립하고자 한 백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라 여겨진다.

33) 鈴木靖民, 위의 논문, 32쪽. 鈴木靖民은 백제의 일본 파견 사신이 天智 10년(671) 6월 庚辰 이후로 보이지 않은 것은 신라에 의해 압박을 받음으로써 이 시점에 이르러 완전히 백제가 소멸한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백제복국론에 대항하여 671년 7월 26일 나당전쟁 중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아찬 眞王을 도독으로 임명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신라가 백제 전 지역을 통치권 안에 둔 것은 676년 11월 기벌포 해전에서 당나라를 격퇴하여 사실상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 678년 4월 무진주 도독을 임명함으로써 비롯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백제의 일본에 대한 사신 파견이 중단된 것은 일본 조정의 壬申의 亂으로 인한 집권 세력의 외교정책의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신이 筑紫에서 반각되었다. 676년의 일본과의 교섭 또한 탐라왕이 직접 일본에 건너감으로써 일본 조정과 교섭할 수 있었고, 678년의 사신 또한 일본에 도착한 지 5개월여 만에 일본의 평성경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674년 탐라의 사신이 筑紫에서 반각될 때에 처음으로 받은 大乙上이라는 관위는 天智天皇 3년(664) 2월 9일 제정한 일본 26계의 관위 가운데 제19階로서, 天智天皇 10년(671) 1월 백제의 유망민인 佐平 餘自信·沙宅 紹明이 大錦下(제9계)를, 鬼室集斯가 小錦下(제12계), 達率의 관위를 가진 이들이 大山下(제15계)·小山下(제18계) 등을 받은 것³⁴⁾에 비교할 때에, 일본 조정이 탐라국왕을 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문무왕 19년(679) 신라의 탐라 경략 이후, 일본은 탐라와 몇 차례 통교하였다. 天武天皇 8년(680) 9월 23일 遣高麗使와 遣耽羅使가 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天武天皇 13년(685) 10월 3일 탐라에 보낸 사신이 天武天皇 14년(686)년 8월 20일에 귀국하였다. 또한 탐라왕은 持統天皇 2년(688) 8월 25일 일본에 佐平 加羅를 보내어 방물을 바쳤고, 持統天皇 7년(693) 11월 7일에는 耽羅王子·佐平 등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렸다. 문무왕 19년 신라의 탐라 경략 이후, 일본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탐라에 사신을 보냈고, 탐라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遣耽羅使의 경우 遣高麗使와 함께 보낸 듯하다. 곧 天武天皇 8년(680)의 사행은 遣高麗使人和 遣耽羅使人이 함께 북명하였고, 天武天皇 14년(686) 8월 20일에 遣耽羅使人이 귀국하고 나서 같은 해 9월 20일에 遣高麗國使人이 귀국하였다. 이는 일본 조정에서 高麗 곧 안승의 고구려(보장국)와 탐라국을 동일한 지위로 보고 사신을 파견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 일본의 遣高麗使人和 遣耽羅使人의 사행 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天武天皇 8년(680)의 遣高麗使는 天武天皇 8년(680) 2월의 고구려 사신과 관련될 듯한데, 혹 문무왕 20년(680) 3월 보덕왕 안승과 文武王妹와의 혼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天武天皇 14년(686) 일본의 사신은, 遣耽羅使人만이 天武天皇 13년(685)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34) 『日本書紀』 권 27, 天智天皇 10년(682) 春 1월.

10월 3일에 출발하여 天武天皇 14년(686) 8월 20일에 귀국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같이 사신의 출발과 귀국일자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 주목되는 사안으로는, 唐에 보냈던 學生 土師宿禰甥·白猪史寶然과 百濟의 戰役 때 唐의 포로가 된 猪使連子首·筑紫三宅連得許의 귀국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들의 귀국 경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들의 귀국을 위해 遣耽羅使를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齊明天皇 7년(661) 5월 23일 越州로부터 귀국하는 伊吉連博得 등이 탐라에 표착하자, 탐라가 王子 阿波伎를 보내어 송환하였던 전례로 미루어 일본의 견탐라사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또한 당시의 遣高麗使는 大文의 보덕국 모반사건으로 고구려의 명맥이 끊이게 되자, 그 유민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여겨진다.³⁵⁾ 사실 일본 조정의 遣高麗使가 귀국한 7일 후인 天武天皇 14년(686) 9월 27일에 歸化한 高麗人들에게 祿을 내린 것이나, 持統天皇 원년(687) 3월 15일에 이들 고구려 귀화인을 常陸國에 안치하고 田을 지급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리라 본다.

아무튼 일본 도당 유학생과 당의 포로가 된 자들은 遣耽羅使를 파견한 한 달여 뒤인 天武天皇 13년(685) 12월 6일 신라사를 따라 筑紫로 귀국하였다. 이후 견당 유학생이나 사신들은 신라를 거쳐 일본에 귀국하였는데, 항상 신라가 送使를 보내어 호송하였다.

35) 村上四男, 『半島(金馬渚)の小高句麗國』, 『紀要(人文科學)』 8, 和歌山大學, 1958;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260쪽. 村上四男은, 天武天皇 13년(685) 일본의 遣高麗使는 고구려 망명자를 데려오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鈴木靖民은 이 시기 고구려 유민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조정이 신라의 고구려유민에 대한 방책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개입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村上四男의 견해를 억측이라 하여 부정하였다(鈴木靖民, 앞의 논문, 38쪽) 그러나 신문왕 4년(684) 11월에 금마저에서 일으킨 고구려 장군 대문의 모반이 진압되고, 天武天皇 13년(685) 5월에 일본의 遣高麗使가 파견되어 그 이듬해 9월 20일에 귀국하였다는 것, 그리고 후술하듯이 遣高麗使가 귀국한 지 7일만인 9월 27일에 歸化한 高麗人들에게 祿을 내렸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덕국민이 일본의 遣高麗使를 따라 일본에 망명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고구려(보덕국)의 명운이 끊어진 상황에서 보덕국에 파견된 일본사신과 보덕국간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며, 이들을 따라 보덕국민이 망명하였다면 이들 견고려사의 사명은 보덕국 유민의 망명과 관련된 것이라 보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는 持統天皇 4년(690) 9월 23일 送使 金高訓으로 하여금 일본 도당 유학생 智宗·義德·淨願과 軍丁 大伴部博麻 등을 데리고 筑紫로 호송하게 하였다. 또한 光仁天皇 寶龜 9년(778) 11월 10일 일본의 견당사 海上真人三狹 등이 耽羅嶋에 표착하자, 일본조정은 光仁天皇 寶龜 10년(779) 2월 13일 견신라사를 파견하여 저들의 견당사를 찾아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신라는 光仁天皇 寶龜 11년(780) 정월에 이들을 찾아 사신을 보내 송환하였다. 당시에 일본이 신라 조정에 이들의 송환을 요청한 것은, 이미 天武天皇 13년(685) 도당유학생과 당 포로의 송환, 그리고 持統天皇 4년(690) 도당유학생의 송환을 신라가 주도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신라는 天武天皇 13년(685) 무렵에 이미 대일 교섭에 있어서 탐라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던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아무래도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의 탐라국 경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는 탐라를 ‘탐라국’이라 지칭하고 있어, 신라가 탐라국을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무왕 2년(662) 조에는 신라에 내항한 주체를 ‘耽羅國主’라 하고, 항복하여 속국이 된 것으로 일컬었다. 또한 문무왕 19년(679)에는 경략의 대상으로서 ‘탐라국’을 지칭하였으며, 애장왕 2년(801)조에는 ‘탐라국’을 신라에 조공한 주체로 보았다. 이렇듯이 신라는 탐라국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였다.

중국의 사서 곧 『자치통감』이나 『신당서』, 『당회요』 등에서는, 탐라를 新羅 武州 南島상에 있는 신라에 부용한 나라[附新羅]로 보았는데, 이는 탐라국이 661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고, 665년 당 고종의 泰山 封禪 때에 참여할 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耽羅와의 외교 관련 기록에서는, 王子 阿波伎(661.5.), 王子 姑如(666.1.11.), 佐平 椽磨(667.7.11.), 耽羅王(669.3.18.), 王子 久麻藝·都羅·宇麻等(674.윤6.8.), 國王 및 사신 久麻藝(674.8.25.), 調使 王子 久麻伎(676.8.1), 耽羅王 姑如(676.9.27), 王子 都羅(678.8.28.), 耽羅 使人(686.8.20.), 耽羅 佐平 加羅(688.9.23.), 耽羅 王子·佐平(693.11.7.)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들로부터 탐라에는 국왕(탐라왕)과 王子가 있고, 王子姑如(666.1.11.)와 耽羅王姑如(676.9.27)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왕이 세습되었으며, 그 휘하에 백제의 관등인 佐平을 칭하는 관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일 외교에 있어서 왕자가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왕자를 고위관료인 佐平이 보좌하여 파

견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측 사료에는 일본에 보낸 탐라의 사신을 처음에는 貢獻(661.5.23, 666.1.11, 667.7.11, 669.3.11.) 내지 來朝(665.8.)라고 일컬었다. 그런데 그 후로 朝貢(674.윤6.8.)과 調使(676.8.1) 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獻方物(688.8.25)의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貢獻과 來朝가 외교적 교섭의 내왕의 형식이라면, 朝貢과 調使는 상하의 관계가 설정된 상황에서 공조를 상국에 예물로 드리는 형식을 의미하며, 獻方物은 그 나라 특산물을 주는 것으로서 공조와는 다른 일종 외교적 예물의 증여 정도로 이해된다.³⁶⁾

일본 사료의 소중화적 서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술상의 변화에 보이는 탐라와 일본의 관계는, 백제멸망 후 백제 부흥운동기와 웅진도독부 기간 동안은 일본과 교류 차원의 교섭이었고, 그 후 나당전쟁기에는 일본과 조공의 형식으로 긴밀히 교섭하였으며, 나당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종결된 이후로는 다시 외교적 내왕 관계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공’ 관계에서 다시 외교적 내왕 관계로의 변화는, 신라가 나당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문무왕 19년(679) 신라의 탐라국 경략으로 신라의 부용국이 된 때문이었다고 여겨진다.

문무왕 19년(679) 신라의 탐라국 경략 이후, 신라는 대일 교섭에 있어서 탐라 관련 문제까지 주도하였다. 일본의 遣耽羅使의 경우는 항상 遣高麗使와 함께 파견되었고, 그것도 표착 일본사신을 찾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마저도 신라와 일본이 직접 교섭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관계는 나당전쟁기에 일본에 파견된 탐라 사신을 ‘朝貢使’ 내지 ‘調使’라고 일컬었으나, 나당전쟁이 신라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일본과는 다시 교류의 형식인 ‘獻方物’로 바뀐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6) 『續日本紀』 권 30, 稱徳天皇 寶龜 元年(770) 3월 4일. 寶龜 원년(770) 3월 일본에 파견된 신라사 김조정이, 외교형식과 관련한 土毛 논쟁시에, 일본의 재당대사 藤原河清과 學生 朝衡 등의 서신을 전달하면서 물품을 바치기 때문에 調라 칭하지 않고 土毛라고 칭하였다는 데서, 土毛 또는 方物과 調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살필 수 있다. 곧 당시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土毛라고 하였고, 이를 외교적 증여물로 기능할 때에 ‘調’ 또는 ‘國信物’이라 지칭하였던 것이다. (박남수, 『통일신라의 대일 교역과 애장왕대 교빙결호』, 『사학연구』 88, 2007 ;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237쪽)

그러나 탐라는 일본에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 693년 11월 7일까지도 옛 백제의 좌평 관등을 지닌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백제 관등은 탐라국이 백제의 부용국이었을 당시에 수용된 것이리라 여겨지지만, 신라에게 내정을 크게 구애받지 않았던 사정을 보여준다. 앞서 일본의 견탐라사 파견과 함께 견고려사가 파견되었던 데서, 당시 탐라의 국가적 지위는 안승의 고구려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한다.

안승의 고구려는 멸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종묘와 사직을 두고, 고구려 전통의 관등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는 항상 신라 송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외교적 접촉에서는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 당시 해군력이 없었던 고구려로서는 신라의 선박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신라는 송사와 함께 고구려 사신을 일본에 보내고, 송사는 築紫에서 되돌아오곤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일본과의 교섭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형제 나라의 의리로 신라를 대국으로 여겼다. 이는 당시에 신라가 황제로서의 지위에 있었음을 의미하며,³⁷⁾ 문무왕 20년(680) 3월 보덕왕 안승에게 金銀器 등을 내리며 문무왕의 누이와 혼인을 시키도록 하고하자, 같은 해 5월 안승이 표문을 올리면서 문무왕의 누이를 ‘帝女’라고 일컫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래에 발견된 「大唐 故 右威衛將軍 上柱國 禰公墓誌銘 并序」(678.10.2.)에서 일컫는 “僭帝一旦稱臣”³⁸⁾의 ‘僭帝’ 또한 문무왕으로 여겨지거니와, 신라가

37)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224쪽. 김창겸은 662년(문무왕 2)에 耽羅國으로부터 朝貢을 받았던 것과 安勝을 高句麗王(뒤에 報德國王)으로 책봉하고 表文을 받은 사실로써 신라의 국왕은 중앙의 황제적 지위에서 주변국을 제후국에 봉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먼저 耽羅國으로부터 朝貢을 받은 시기는 애장왕 2년(801)의 일로서 이에 대한 필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라의 황제적 지위에 대한 견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왕 때의 탐라 복속이나 애장왕 때의 탐라 조공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신라와 탐라간의 외교적 관계 등을 검증하지 않고 단순히 ‘조공’이라는 어귀만으로 황제-제후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일본서기』에 보이는 신라 등의 일본에 대한 조공 기사로써 한국 고대국가를 천자제후의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일본 학계의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되며, 고대 중국과 한국의 관계 또한 ‘조공’이라는 문구에 얽매어 우리 고대사의 독자성을 멸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황제의 나라로서 안승의 고구려를 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탐라국도 안승의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국왕과 왕자, 그리고 백제로부터 이어져 오던 좌평 등의 관등을 유지하였고, 일본과의 교섭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고구려는 신문왕 3년(683) 10월 안승이 신라의 관등 소관에 임명되면서 고구려민이 黃紵褱(황저우)로 편성되고, 신문왕 4년(684) 11월에 금마저에서 일으킨 고구려 장군 대문의 모반이 진압됨으로써 그 명맥이 끊어졌던 것이다. 안승을 소관에 임명하고 고구려민을 9서당에 편성한 것은 일종 신라의 고구려 병합책의 일환으로서, 대문의 반란은 이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여겨진다. 지적되듯이 신라가 신문왕 6년(686) 고구려인에게 신라의 京官을 수여하고 보덕성민으로써 벽금서당을 편성한 것은 신라의 고구려인에 대한 전략적인 최종 병합책이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은 天武天皇 13년(685) 견고려사를 파견하여 그 이듬해 9월 20일에 귀국하였고, 693년 11월 7일 탐라가 보낸 사신은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마지막 사신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사실 탐라로서는 고구려의 명맥이 신라의 무력에 의해 끊기게 된 상황을 목도하였고, 백제 동성왕 때에 무력에 의한 진압 직전 상황까지 갔었던 경험으로 미루어, 신라에 대한 부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탐라의 일본 사신 파견이 보이지 않고, 애장왕 2년 신라에 대한 조공 기사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 여겨진다.

IV. 탐라국의 물산과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

탐라의 물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 魏書 30, 東夷傳 韓조 말미의 州胡조에 보인다. 주호는 『해동역사』 권 16, 世紀 16, 諸小國조에서 ‘탐라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이래로, 淸末의 지리학자 丁謙(1843~1919)은 州胡를 지금의 濟州로 보았다. 현재 학계에서 이를 탐라의 전신으로

38) 拜根興, 『百濟移民墓志石刻資料匯集』,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306쪽.

39) 鈴木靖民, 앞의 논문, 42~43쪽.

보는 데는 이론이 없다.⁴⁰⁾ 『삼국지』에는 주호의 물산에 대하여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기술하고, 배를 타고 韓中과 교역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주호인이 입었다는 가죽옷이란 이들 소와 돼지 등의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한중과의 교역 기사에서 주호인들은 3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해상 교역을 통하여 필요한 생필품을 한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탐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변 여러 나라와의 교역은 생존의 필수조건이었다고 하겠다.

그 밖에 탐라의 물산으로는 고구려 문자왕 13년(504) 고구려 사신 悉弗進이 북위의 世宗에게 사린 말 가운데 涉羅의 珂가 보인다.⁴¹⁾ 涉羅를 신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탐라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⁴²⁾ 珂에 대해서는 흰 옥돌 또는 조개로 만든 말재갈 장식으로 보거나, 마노로 파악하기도 한다.⁴³⁾

그런데 『당회요』와 『신당서』, 『세종실록』에는 탐라[제주]의 물산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 D. 그 나라[백제]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을 가면 舳舻羅國이 있는데, 남북으로 천여 리이고 동서로는 수백 리이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土多麋鹿] 百濟에 附庸되어 있다. 百濟에서 서쪽으로 사흘을 가면 貊國에 이른다고 한다.(『隋書』 東夷列傳, 百濟)

40) 李丙燾, 1976,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297쪽.

41) 『魏書』 권 100, 列傳 88, 高句麗;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13년 4월.

42) 장창은, 앞의 논문, 107~109쪽.

43) 장창은, 위의 논문, 106~113쪽. 그런데 涉羅=신라설'에 있어서 과연 『진서』의 薛羅를 涉羅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涉라의 산물이라는 ‘珂’를 마노라고 확정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동일한 『위서』에서 왜 신라와 涉라의 명칭이 함께 등장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필자로서는, 아무리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正始 연간(504~507)에 과연 ‘백제가 신라를 병탄하였다’고 고구려가 북위에게 일컬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비롯하여, 당시 백제가 남제와 송, 동진 등의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수서』에서 탐라(탐모라국)와 백제, 백제와 고구려(貊國)의 거리를 운위한 것은 고구려가 백제 병탄 이전에 탐라와 교류하였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5세기 후반 백제가 獫狁의 침략을 물리쳤다는 기사가 있고, 위 정시연간에 고구려의 약화된 모습에서 최소한 한반도 중서부 이남의 제해권은 백제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 고구려의 ‘백제의 涉라 병탄’의 언급에 보이는 涉라는 탐라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E. 耽羅는 新羅 武州 바다 위에 있는데, 山島 위에 거처한다. 주위가 모두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으로 백제까지 5일 거리로 떨어져 있다. 그 왕은, 성이 儒李이고, 이름이 都羅이다. 城隍이 없고, 5部落으로 나뉘어 만들었다. 그 屋宇는 둥근 담장으로 둘러싸고 풀로 지붕을 덮었다. 戶口는 8,000이고, 활(弓), 칼(刀), 방패(楯), 창(稍)이 있고, 문자의 기록은 없다. 오직 鬼神을 섬기고, 항상 백제에 속하여 부역하였다.[常役屬百濟] 龍朔 원년(661) 8월 朝貢使가 이르렀다.『唐會要』 권100, 耽羅國)

F. 龍朔 初에 僭羅가 있었는데, 그 왕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 入朝하였다. 나라는 신라 武州 남쪽 섬 위에 있는데, 풍속이 소박하고 누추하다. 큰 돼지 가죽 [大豕皮]으로 옷을 입고, 여름에는 가죽으로 만든 집[革屋]에 거처하고, 겨울에는 굴방[窟室]에서 지낸다. 토지는 五穀이 나며, 경작하는데 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빨모양의 쇠스랑[鐵齒]으로 땅을 고른다. 처음에 백제에 부용하였는데, 麟德(664~665) 중에 추장이 내조하여, 황제를 따라 太山에 이르렀고, 후에 신라에 부용하였다.『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流鬼)

위의 사료 가운데, 『수서』(D)에서는 탐라[船牟羅國]의 토산으로서 노루와 사슴[麋鹿]을 들었다. 그런데 『당회요』(E)와 『신당서』(F)의 기사에서는 노루와 사슴에 대한 정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탐라의 생활과 규모, 군사 관련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당회요』(E)와 『신당서』(F)의 탐라에 대한 정보는 661년 탐라 사신의 조공과 665년 당 고종의 태산 봉선 때에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국왕을 儒李都羅라고 특정하고, 태산 봉선 이후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백제의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될 무렵의 탐라는, 5개 부락으로 구성되었고, 인구는 8,000명 정도였으며,⁴⁴⁾ 활(弓), 칼(刀), 방패(楯), 창(稍)으로 무장한 군인이 존재하였으며, 五穀을 생산하고 돼지를 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 외에 고대 탐라의 물산과 관련된 것으로는,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와 『延喜式』 권 24, 主計上式的 調에 보이는 肥後國과 後農國의 耽羅鮪, 『扶桑略記』 延長 7년(929) 5월 17일조에 보이는 海藻 등이 있다.⁴⁵⁾

44) 이청규, 앞의 논문, 680쪽.

또한 고려 건국 이후로 탐라는 태조 8년(925) 11월 方物을 貢上한 이래로 빈번하게 방물을 바쳤다. 문종 6년(1052) 3월에는 橘子の 歲貢을 100包子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문종 7년(1053) 2월에는 牛黃·牛角·牛皮·螺肉·櫃子·海藻·龜甲 등을 바치고, 公服·銀帶·彩段·藥物 등을 회사 받았다. 또한 문종 33년(1079) 11월에는 耽羅勾當使 尹應均이 큰 진주 두 매를 바쳐 이를 야명주로 일컫기도 하였다. 이들 탐라에서 고려에 바친 물품은 탐라의 산물로서, 아마도 통일 신라의 대외 교역 과정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사실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部領使 大宰府少判事 從7位下 錦部連定麻呂가 天平 10년(738) 4월 19일 周防國에 침을 보내어 그 대금 지출을 요청한 물품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의 물품은 造蘇 4升, 納壺 4口, 乳牛 6頭, 飼稻 48束을 비롯하여, 交易御履料 牛皮 2領(價 稻 170束), 交易鹿皮 15張(價 稻 61束), 耽羅方脯 4具(價 稻 60束), 市替傳馬 11匹(價 稻 2750束) 등인데,⁴⁵⁾ 대금 지출 요청서는 天平 10년(738) 4월 19일 大宰府에서 이첩한 것이다. 이들 물품이 대재부에서 天平 10년(738) 4월 19일 무렵에 매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天平 10년(738) 정월에 金想純 등 147명의 사신단이 大宰府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平城京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재부에 머물다가, 같은 해 6월 24일 대재부의 향응을 받고 放還되었다.⁴⁷⁾ 이들 신라 사신의 방환은 735년 신라사신 金相貞 등이 신라를 '王城國'이라 일컬음으로써 返却되면서부터였다.⁴⁸⁾ 이후 신라와 일본의 교섭은 갈등의 연속이었고, 효성왕 원년(737)에는 일본의 견신라사 일행을 신라 왕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돌려보낸 바 있다. 김상순의 사행은 이러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김상순 때부터 신라 사신단의 수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사신단이 반각 되더라도 가지고 간 물건을 교역할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⁴⁹⁾

45) 森公章, 앞의 논문, 1985; 앞의 책, 1998, 227~228쪽.

46) 東京帝大文科大史料編纂掛 編, 「周防國正稅帳」, 『大日本古文書(編年文書)』 권2, 1901, 130~146쪽. 東京大 史料編纂所 奈良時代古文書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wwwap.hi.u-tokyo.ac.jp/ships/shipscontroller>)

47) 『續日本紀』 권 13, 聖武天皇 天平 10년(738) 春 正月·6월 辛酉.

48) 『續日本紀』 권 12, 天平 7년(735) 2월 癸丑.

49) 박남수, 앞의 논문, 2007; 박남수, 앞의 책, 264~265쪽.

김상순 일행은 6개월여 동안 大宰府에 머물렀고,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물품은 大宰府에서 天平 10년(738) 4월 19일 周防國에 칩을 보내어 대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대재부가 요청한 시기에는 147명의 신라사신단이 대재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는 바로 신라 사신단과의 교역물품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동 正稅帳에 보이는 交易御履料 牛皮와 交易鹿皮는 교역에 의한 물품임을 표시하였거니와, 이는 시전에서 교환한 市替傳馬와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牛皮는 신발을 만드는 재료로 교역한 것이고, 鹿皮 또한 신라 국왕의 신발 紫皮靴을 만드는 재료이다.⁵⁰⁾ 이들 가죽 제품은 일찍이 신라의 사신들이 일본 조정에 ‘조공품’으로 가져 갔던 물품이기도 하다. 곧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일본에 보낸 물품 가운데 皮(679), 鹿皮·皮之類(681), 虎豹皮·鞍皮(686), 皮(688) 등을 들 수 있는데, 大宰府가 교역하였다는 牛皮와 鹿皮 또한 김상순 일행이 耽羅方脯와 함께 교역한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牛·鹿은 탐라의 특산품이기도 하거니와, 耽羅方脯와 함께 교역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또한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10월 21일 向京의 식료 제공자 가운데 耽羅島人 2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牛·鹿皮的 교역과 耽羅方脯와 관련될 듯한데, 만일 그러하다면 이들 탐라도인은 김상순의 사신단 147명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왜 신라사신단이 방환되었으면서도 이들만이 평성경에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들 대재부가 보낸 물품 가운데 牛·鹿皮나 耽羅方脯, 그리고 6頭の 乳牛와 소의 사료일 것으로 보이는 飼稻 등이 이들 탐라인의 향경과 관련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 21명의 탐라인이 신라사신 김상순과 함께 온 사신단의 일원이라면, 天平 10년(738)의 시점에서 신라는 탐라의 특산물을 일본과의 교역 내지 외교적 증여물로 활용하고, 여기에 일군의 탐라인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이들 탐라인들은 乳牛의 사육이나 신발 등 가죽 제품, 탐라방포 등의 제작 기술과 관련하여 向京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한다.⁵¹⁾

50) 金東旭, 「三國史記 色服條의 新研究」, 『三國史記 志의 新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91, 66쪽.

신라와 탐라의 교류는 8세기 전반의 것으로 여겨지는 용천동굴의 도기를 비롯하여, 제주도 연안의 고내리 유적과 용담동 유적에서 영암 구림리 계통의 도기가 발견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8~9세기 무렵의 영암 구림리 요지에서는 입 넓은 항아리, 사각편병, 주름무늬 유병, 단지와 시루 등 생활 도기와 유약을 바른 도기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유약을 바른 도기는 구림리가 시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림도기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도기는 앞서 제주 지역을 비롯하여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장도 유적지에서도 발견되고, 청해진 장도 토성 유적에서는 제주도의 현무암이 발견되기도 하여, 장보고 시기에 탐라와 신라의 교류 상황을 보여준다. 장도 토성의 현무암은 모종의 물품을 탐라국에 운송하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현무암을 실어왔던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사실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탐라라는 읍호가 신라의 융성기에 처음 탐진에 정착하였던 때문이라 하고, 상호간의 내왕으로 자손이 번성하고 신라를 정성껏 섬겼다고 한 것, 그리고 『扶桑略記』에서 신라인이 탐라를 오가며 탐라의 海藻와 교역하였다고 한 것은, 전라도 남해안의 탐진 지역과 탐라간의 교류에 따른 전승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韓愈(768~824)의 昌黎文에 실린 「送鄭尙書」에는 “그 海外 雜國으로 는 耽浮羅、流求、毛人、夷亶之州、林邑、扶南、眞臘、於陀利 등이 있는데, 바람과 조류를 기다려 중국에 조공하거나 바다 가운데서 교역을 한다. … 嶺南에 … 외국의 재화가 날로 이르러 珠·香·象·犀·玳瑁·奇物이 중국에 넘쳐나 다 쓸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長慶 3년(823) 4월 무렵의 정황을 기술한 것인데, 여기에 보이는 耽浮羅는 탐라국을 지칭한다.⁵³⁾ 여기에

51) 森公章, 앞의 논문, 1985; 박남수, 앞의 책, 1998, 223~226쪽. 이들 탐라인을 표착민으로 보기도 하지만 당시에 金想純 등 147명의 신라 사신단이 天平 10년(738) 정월에 大宰府에 도착하여 6개월여 동안 大宰府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동 기간에 「周防國正稅帳」에 보이는 耽羅方脯 등의 물품을 大宰府에서 교역한 것, 그리고 동 문서를 天平 10년(738) 4월 19일 周防國에 첩을 보내어 대금을 지불하도록 한 것, 그러한 과정에 탐라인 21명이 등장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탐라인들이 신라사신 김상순 일행과 함께 일본에 파견되어 대재부에 머물다가 이듬만이 向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박남수, 「장보고의 교관선과 교역물품」, 『한국해양사II(남북국시대)』, 한국해양재단, 2013, 309~310쪽.

서 지칭한 외국의 재화 곧 珠·香·象·犀·玳瑁·奇物 가운데, 珠·香·玳瑁는 제주와 관련될 듯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제주의 물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G. ... 그 땅의 기후가 따뜻하며, 풍속이 미옥하고 검소하다. 개간한 밭(墾田)이 3천 9백 77결이요, 【논이 31결이다.】 토양이 밭벼[山稻·기장·피·콩·메밀·밀보리 경작에 적당하다. 토공(土貢)이 대모(玳瑁)·표고·우모[牛毛]·비자·감귤·유자·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금귤(金橘)·청귤(靑橘)·돌귤[山橘]·전복·인포(引鮑)·퇴포(糙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돌유자나무[山柚子木]·이년목(二年木)·비자나무[樺子木]·좋은 말[良馬]이고, 약재는 진피(陳皮)·마뿌리[山藥]·석골풀[石]·초골풀[草]·소태나무열매[川練子]·구리대뿌리[白芷]·팔각(八角)·영릉향(零陵香)·오배자(五倍子)·치자·향부자(香附子)·모과·뫓미나리[柴胡]·푸른글썩질[淸皮]·백변두(白扁頭)·바곳[草烏頭]·엄나무껍질[海東皮]·후박(厚朴)·오징어뼈·두충(杜沖)·순비기나무열매[蔓荊子]·석결명(石決明)·끼무릇뿌리[半夏]·누른국화[黃菊]·녹용·박상(舶上)·회향(茴香)·탱자껍데기[枳殼]이다... (『세종실록』 권151, 地理志 全羅道 濟州牧)

韓愈(768~824)의 「送鄭尚書」 가운데 보이는 재화 가운데 탐부라 곧 탐라의 산물로는 앞서 살핀 진주와 玳瑁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八角·零陵香·茴香·구리대뿌리[白芷] 등과 牛毛 등을 탐라의 산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의 牛毛는 靴氈, 緋氈, 花氈, □裁氈 등과 같은 氈類의 재료이고, 구리대뿌리[白芷]·八角·零陵香도 衣香의 재료인데, 이들은 752년 일본에 파견된 김태렴의 「매신라물해」에서 살필 수 있다.

한편으로 9세기 중후반 무렵 당나라 강남·영남도의 사정을 보여주는 이븐 쿠르다지마(Ibn kuhrdadhibah, 820~912)의 『諸道路 및 諸王國志』와 남송 보경 원년(1225) 趙汝适이 편찬한 『諸蕃志』의 신라국조에서는 신라의 대외교역물품으로 麝香, 肉桂, 人參, 松子, 榛子, 石決明, 松塔子, 防風, 白附子, 茯苓 등을 살필 수 있다.⁵⁴⁾ 이 가운데 사향은 『수서』에서 제주의 특산으로서 특

53) 진영일, 앞의 논문, 29쪽.

54) 馮承鈞, 『諸蕃志校注』, 臺灣 商務印書館, 1967, 88쪽; 무함마드 간수(정수일), 「신라와 서역간의 문물교류」,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출판부, 1992, 228쪽.

기한 사슴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결명은 조선시대에 제주의 특산으로 꼽혔다.

요컨대 탐라국의 특산물로는 소·돼지, 珂, 사슴과 노루 등을 비롯하여, 韓愈(768~824)의 「送鄭尙書」에 보이는 탐부라(탐라)의 진주와 玳瑁, 그리고 일본측 기록인 「周防國正稅帳」(738)의 耽羅方脯와 乳牛·牛皮·鹿皮, 『延喜式』(927)의 耽羅鮫, 『扶桑略記』 延長 7년(929) 5월 17일조의 海藻, 『고려사』의 橘子, 牛黃·牛角·牛皮·螺肉·櫃子·海藻·龜甲, 진주 등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제주 특산물 가운데 八角·零陵香·茴香·구리대뿌리[白芷] 등과 牛毛는 신라의 대외 교역품으로 일찍부터 등장한 물품이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의 牛毛는 신라의 대외수출품이었던 靴氈, 絁氈, 花氈, □裁氈 등과 같은 氈類의 재료이고, 구리대뿌리[白芷]·八角·零陵香 등은 衣香의 재료로서 모두 김태렴의 「매신라물해」(752)에서 살필 수 있다. 또한 이븐 쿠르다지마(Ibn kuhrdadhibah, 820~912)의 『諸道路 및 諸王國志』와 남송 보경 원년(1225) 趙汝适이 편찬한 『諸蕃志』에 보이는 신라의 대외교역물품인 麝香과 石決明은 제주의 특산인 사슴과 석결명에 상응하는 물품이었다.

조선 전기의 제주 특산 가운데 珍珠와 玳瑁, 牛毛, 그리고 白芷·八角·零陵香 등의 향료, 사향, 石決明 등은, 이미 탐라국시대부터 개발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물품은 신라의 동아시아 교역에 있어서 일본이나 중국 강남 지역의 동서 교역에까지 교역되었던 것이다. 州胡 때의 소·돼지의 사육으로부터 6세기 무렵 涉羅의 珂, 그리고 수나라 때의 사슴과 노루 등 탐라국의 특산이, 백제·신라와 내왕하면서 고급 물품의 재료나 향료, 약재 등으로 새로이 개발되어 통일신라의 융성한 대외 교역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탐라의 대외교섭을 문무왕 2년의 탐라국 내항 기사와 문무왕 19년의 신라의 탐라국 경략기사, 그리고 애장왕 2년(801)의 탐라국 조공 기사를 중심으로 살피고, 탐라의 특산물이 신라 대외 교역사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맺음말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신라가 문무왕 2년(662) ‘백제에 臣屬하였기 때문에 좌평으로써 官號를 삼았다’고 인식한 것은, 당시 신라에 내항한 耽[耽]羅國主 佐平 徒冬 音律[津]에 의한 정보로서, 백제가 탐라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臣屬의 대가로 佐平의 관직을 내렸던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문무왕 2년 탐라국의 신라에 대한 내항은, 백제 의자왕의 항복에 따라 백제의 속국으로서 당나라와 신라에 대한 항복의 의사를 표한 것이, 661년 8월 당나라의 조공과 그 이듬해 신라에 대한 내항이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문무왕은 탐라가 항복하여 신라의 속국이 되었다고 여겼다.

둘째,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탐라국을 경략하였다 는 기사는 당시 통일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탐라가 기민하게 각국과 교섭하였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곧 탐라국주는 문무왕 2년(662) 신라에 내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부흥군이 활약하자 백제-왜로 이어지는 동맹의 라인을 유지하였는데, 663년 백제부흥군의 백강전투 패전과 665년 당 고종의 태산 封禪儀式에 탐라국주 내지 사신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그 후 탐라국은 웅진도독부 내지 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676년 기벌포 해전으로 나당전쟁이 종결되고 678년 4월 신라가 무진주 도독을 임명하여 전라도 일원까지 지배력을 확대하자, 동시기 8개월 여 동안 일본에 함께 체재한 신라 사신과 탐라국주 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신라는 문무왕 19년(679) 2월 신라가 무력이 아닌 사신의 파견만으로 탐라에 대한 신라의 정책을 쉽게 관철할 수 있었다.

셋째, 탐라국은 문무왕 19년(679) 신라의 경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 통교할 뿐더러 백제의 관등을 유지하고, 신라에 대해서는 애장왕 2년(801)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만을 살필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탐라를 ‘탐라국’이라 지칭하고 있어, 신라가 탐라국을 독립된 나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신라는 황제의 나라로서 안승의 고구려와 탐라에 대하여 각각의 종묘와 사직, 독자적인 내정과 외교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신문왕 4년(684) 고구려의 안승에게 소판이라는 신라의 관등을 내려 신속화함으로써 고구려의 명맥이 끊겼고, 탐라의 경우 일본에 마지막으로 사신을 파견한 693년 11월 이후 신라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치통감』이나 『신당서』, 『당회요』 등 중국 사서에서 탐라를 新羅 武州 南島상에 있는 신라에

부용한 나라로 인식한 것이나, 『삼국사기』에서 탐라국이 애장왕 2년(801)에 조공하였다는 기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탐라국의 특산물로는 소·돼지, 珙, 사슴과 노루 등을 비롯하여, 8세기로부터 10세기에 이르는 진주와 玳瑁, 耽羅方脯와 乳牛·牛皮·鹿皮, 耽羅鮓, 고려시대의 橘子和 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 진주,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제주 특산 가운데 八角·零陵香·茴香·구리대뿌리[白芷] 등과 牛毛는 신라의 대외 교역품으로 일찍부터 등장한 물품이었다. 특히 天平 10년(738)의 「周防國正稅帳」에 10월 21일 向京의 식료 제공자 가운데 耽羅島人 2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乳牛의 사육이나 牛·鹿皮나 耽羅方脯의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거나, 天平 10년(738)의 시점에서 신라는 탐라의 특산물을 일본과의 교역 내지 외교적 증여물로 활용하였고, 여기에 일군의 탐라인이 참여하였던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사실 제주의 특산물 가운데 珍珠와 玳瑁, 牛毛, 그리고 白芷·八角·零陵香 등의 향료, 사향, 石決明 등은, 백제·신라와 내왕을 하면서 새로이 개발되어 통일신라의 융성한 대외 교역품으로까지 자리매김한 물품이라 할 것이다.

신라와 탐라의 교류는 8세기 전반의 것으로 여겨지는 용천동굴의 도기를 비롯하여, 제주도 연안의 고내리 유적과 용담동 유적에서 영암 구림리 계통의 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周防國正稅帳」에서 일본과의 교역에 일군의 탐라인이 참여하였던 사실을 살필 수 있거니와, 당시 신라사신 147명이 大宰府에서 반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탐라도인만이 平城京에 향하면서 일본측으로부터 식료를 제공받았던 것은, 탐라인들의 乳牛 사육이나 가죽물품 제작기술의 전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이 문제는 당시 신라와 탐라의 대외 교섭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밝히는 주요한 단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海東繹史』
 『三國志』 『魏書』 『隋書』 『北史』 『舊唐書』 『新唐書』 『唐會要』 『資治通鑑』 『冊府元龜』
 『日本書紀』 『續日本紀』 『延喜式』 『扶桑略記』 『送鄭尙書』 『諸蕃志』
 東京帝國大學 文科大學 史料編纂掛 編, 『大日本古文書』 권2, 1901.
- 李丙燾,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村上四男,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무함마드 간수(정수일),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출판부, 1992,
 盧泰敦,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森公章,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1998.
 박남수, 『한국 고대의 동아시아 교역사』, 주류성, 2011.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村上四男, 「半島(金馬渚)の小高句麗國」, 『紀要(人文科學)』 8. 和歌山大學, 1958.
 鈴木靖民, 「百濟救援の役後の百濟および高句麗の使について」, 『日本歴史』 241, 1968.
 箕敏生, 「耽羅王權과 日本」, 『耽羅文化』 1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0. .
 金東旭, 「三國史記 色服條의 新研究」, 『三國史記 志의 新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91.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 『濟州島史研究』 3, 濟州島史研究會, 1994.
 李清圭, 「耽羅 上古社會 變遷過程 研究」, 『省谷論叢』 27-4, 1996.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이근우, 「탐라국 역사 소고」. 『역사와 세계』 30, 2006.
 진영일, 「고대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문화』 30, 2007.
 김경주, 「고고유물을 통해 본 耽羅의 대외교역 漢式유물을 중심으로」, 『탐라사의 재
 해석』, 제주발전연구원, 2013.
 박남수, 「청해진의 설치와 장보고의 해상무역」, 『한국해양사Ⅱ(남북국시대)』, 한국해
 양재단, 2013.
 장창은,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탐라문화』 57, 2018.
 東京大史料編纂所 奈良時代古文書フル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www.wap.hi.u-tokyo>).

ac.jp/ships/shipscontroller)

「‘제주도는 일본땅?’ 국정교과서 파문」, 『KBS 뉴스』 2016.12.02.

「“탐라는 일본땅?” ... 국정교과서 ‘탐라국 누락’ 수정될 듯」, 『헤드라인제주』 2016.12.05.

Abstract

The diplomacy of Tamra kingdom in East asia and the relation with Silla.

Park, Nam-soo*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plomacy of Tamra kingdom focusing on the records on the visit to Silla to surrender in the 2nd year of King Munmu's reign(622), the diplomatic surrender to pressures and threats from Silla in the 19th year of King Munmu's reign(679) and tributes to Silla in the 2nd year(801) of King Aejang. Based on this examination, the author also tried to determine in which place special products by Tamra kingdom took in the trade history of Silla.

The visit of Tamra kingdom to Silla, as a subject country of Baekje, appearing in the record in the 2nd year of King Munmu(622) means the expression of its surrender intention to Silla and Tang, according to the defeat of Baekje. However, while the alliance with Tamra kingdom, the revival army of Baekje and Japan was maintained, the war between Silla and Tang ended up in Silla's victory in 676. After that, Silla expanded its domination to the area of Jeolla, appointing the governor of Mujin. Under this situation, the envoy of Silla pressed and threatened king of Tamra to surrender while they stayed together in Japan for 8 months, which made the colonization of Tamra kingdom by Silla possible without wars in February of 679.

* Dongguk Center For History Studies

At first, Silla gave Tamra kingdom a guarantee for independent domestic affairs and diplomatic rights as like the revived Goguryeo. Later, it appears that Tamra was deprived of its diplomatic rights after December of 693 when Tamra dispatched its envoys to Japan. However, Tamra kingdom identified and commercialized new herbs and spices, medicine herbs and high quality materials for trade with Silla. Among special products of Tamra kingdom, especially, pearls, shell of sea turtle, cow hair and herbs such as angelica dahurica(白芷)·star anise(八角)·Lysimachiae Foenum-graeci Herba(零陵香), musk, senna(石決明) took an important position in trade with unified Silla.

Key Words : Tamra kingdom, King Munmu, King Aejang, the expression of Tamra's surrender intention to Silla, the envoy of Silla pressed and threatened king of Tamra, products of Tamra kingdom, trade goods of unified Silla

교신 : 박남수 0530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49길
32-17 정산빌라트 404호
(flydolman@naver.com)

논문투고일: 2018. 04. 28

심사완료일: 2018. 05. 25

게재확정일: 2018. 06. 07